저마다 다른 도시 감상법.

제각각인 도시를 일관된 방식으로 볼 수는 없는 법

저마다 다른 문화와 다른 취향의 도시
품은 자연이 다르고, 품은 스토리가 다르고
이 도시를 찾는다면, 이렇게 도시를 돌아 보세요
그 도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히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친절한 스위스 도시 여행 설명서

스위스의 도시는 저마다 새로운 매력을 품고 잠시 쉬어가며 그 면모를 발견해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옛 것을 체험해 보지 않겠느냐고 여행자들을 유혹한다. 저마다 다른 역사와 문화, 전통, 지역색을 가진 도시를 한 가지 통일된 방식으로 여행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즐기는 방식대로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여행지의 가장 진실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법이다. 그 방법을 소개한다.

1. 루체른(Luzern) 버킷 리스트

스위스 한가운데 자리한 루체른은 수없이 많은 매력을 품고 여행자를 기다린다. 관광지 투어나 미식 투어, 페달로(pedalo) 보트 체험, 혹은 근교의 자연 즐기기 그 어느 것이든 마음껏 루체른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열 가지를 정리했다. 그 무엇보다 루체른은 어디나 쉽게 걸어갈 수 있어 좋다.

카펠교(Kapellbrücke)와 수탑(Water Tower)

익숙한 풍경이다. 1993 년 카펠교는 화재 사고를 당한다. 불길을 이기고 남아 복원된 카펠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달린 목조 다리이며, 카펠교와 이어진 수탑은 스위스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담기는 피사체 중 하나다. 다리는 로이스(Reuss) 강을 가로지르는데, 지붕을 따라 이어지는 그림이 스위스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

무제크(Musegg) 성곽

무제크 성곽은 과거 요새의 일부다. 성곽을 따라 아홉 개의 탑이 있는데, 루체른 도심을 내려다보는 기막힌 전망을 선사한다. 성곽 뒤로는 힌터 무제크(Hinter Musegg)가 있다. 여기에서 전원생활을 엿볼 수 있다. 도심이 바로 근처인데 이런 시골 풍경이 펼쳐진다는 사실이 놀랍다. 배고픈 염소와 귀여운 새끼 돼지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맛있는 유기농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사자상과 빙하 정원

상처 입은 사자는 루체른을 대표하는 기념비로, 1792 년 파리에 있는 튈르리 타워(Tuileries Tower)에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스위스 용병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바로 옆에는 빙하 정원이 있는데, 2 만여 년 전에 형성된 빙하를 볼 수 있다. 산속의 어두운 내부 역시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루체른의 사암이 이곳의 암석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원시 바다부터 산의 형성까지, 마지막 빙하기 동안 일어난 지형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거울의 방(Hall of Mirrors)으로 잠시 돌아가도 좋다. 출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루체른 호수 즐기기

호수를 끼고 있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뜨거운 여름 날 특히 매력적인 도시다. 하루 종일 도시를 거닐다 물속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혀도 좋다. “인젤리(Inseli)”는 잔디 위에 편히 누워 쉬어가기 완벽한 곳이다. 음료 한 잔을 하기에도 좋다. 물가가 아니라 물 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스위스 트래블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패스로 유람선을 타고 짧은 호수 투어를 즐겨봐도 좋다. 아직 기운이 남아 있다면, '페달로'라고 불리는 페달보트로 루체른 호수를 온전히 체험해 봐도 좋겠다.

나이트라이프
루체른에 온 김에 들렀다 가라고 수많은 바가 여행자를 기다린다. 여기 좋은 팁이 있다. 바로 제바드(Seebad)다. 여기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음료를 즐길 수도 있다. 루체른 최고의 선셋 스팟으로도 유명하다. 콘서트를 즐긴다면 루체른의 카카엘(KKL)로 향해 보아도 좋다. 매년 500 회의 국내외 연주 행사가 열린다. 화려하면서도 스릴 넘치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랜드 카지노에서 원하는 바를 얻을 지도 모르겠다.

필라투스(Pilatus)
전설 가득한 루체른의 뒷산, 필라투스 꼭대기에서는 루체른 호수와 도심, 360 도 알프스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용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진 필라투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를 타거나, 케이블카, 심지어 하이킹으로 오를 수 있다. 정상에 있는 동굴 길을 걸어봐도 좋다.

쇼핑
쇼핑 없이 도시 여행은 마무리되지 않는다. 루체른의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거닐며 윈도우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부티크나 쉬크한 숍, 톱클래스 브랜드가 매력적인 쇼핑 아이템을 선보인다.

맛있는 시간
루체른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미각을 통해서다. 전통 퐁뒤부터 이국적인 요리까지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는데, 루체른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쉬겔리파스테테(Chügelipastete)다. 페이스트리 안에 크림소스 고기를 담은 요리다. 로이스 강을 따라 예쁜 레스토랑이 여럿 있는데, 카펠교와 구시가지의 풍경이 입맛을 돋운다. 화창한 여름날이라면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시원한 시간
여름은 매일이 아이스크림인 계절이다. 콘피세리 바흐만(Confiserie Bachmann)에서는 매일 신선한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을 선보인다. 여러 맛과 색깔 중에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아이스크림콘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 호숫가를 거닐면 된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면, 빈 물병을 가지고 도심 곳곳에 있는 분수대를 찾으면 된다. 식수급의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분수에 넘쳐흐른다. 스위스에서는 물을 사 마실 필요가 없다. 식수가 아닌 분수대에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이 있다.

숙소
마음껏 호사를 누릴 시간이다! 호텔 슈바이처호프 루체른(Hotel Schweizerhof Luzern)은 왕처럼 잠들고 왕족처럼 눈을 뜰 수 있는 곳이다. 루체른 호수의 화려한 풍경이 룸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을 더욱 감미롭게 만들어 준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미식 체험을 즐기고, 바에서 화려한 칵테일 한 잔을 홀짝이고, 스파에서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봐도 좋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2. 사진의 도시, 빈터투어(Winterthur)

사이클링의 천국으로도 불리는 빈터투어는 포토그래피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포토첸트룸(Fotozentrum) 덕분이다. 포토첸트룸에는 빈터투어 사진 박물관(Fotomuseum Winterthur)과 스위스 사진 재단(Fotostiftung Schweiz)이 들어서 있다. 세계적으로 포토그래피 관련 명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포토제닉한 예술과 문화의 도시

여기에서 빈터투어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취리히 근교에 있는 빈터투어는 예술, 역사, 자연의 보고다. 중세의 유산을 품은 구시가지는 하루 어느 때라도 대단히 포토제닉 하다. 문화도 긴 전통을 가졌다. 빈터투어 내에 있는 17 개의 박물관이 그 증거다. 스위스 국경 너머로도 잘 알려진 포토첸트룸은 빈터투어의 보석 같은 존재다. 스위스 자국민이나 여행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다.

사진의 도시 다운 포토 핫스팟

과거 산업지대였던 빈터투어는 현재 르네상스를 지나는 중이다. 여기저기서 셀카를 찍거나 완벽한 피사체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케쎌하우스(Kesselhaus) 옆에 새로 생긴 광장이나 빈터투어의 파노라마를 담뿍 안겨주는 갈리슈피츠(Gallispitz), 술처아레알(Sulzerareal)에 있는 옛 크레인 아래가 특히 인기 있는 포토 스팟이다. 유니크한 사진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빈터투어라는 평이 자자하다. 여러 종류의 장비도 볼 수 있다. 휴대폰은 물론 필름 카메라와 삼각대 위에 고정시킨 전문가용 카메라도 자주 눈에 띈다.

벽화를 배경으로 찰칵

반마이슈터베그(Bahnmeisterweg) 거리를 따라 펼쳐진 벽화는 새로운 포토 핫스팟이 되었다. 작가, 바질 지라(Basil Girard)가 남긴 거대 그래피티다. 그의 작품은 도시에 자연을 안겨 주는데, 이 벽은 이미 셀카의 성지가 되었다.

구시가지

여기에서 현대적인 조명 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 통로를 따라가면 빈터투어의 구시가지가 등장한다. 매력적인 숍이 즐비한 그림 같은 골목과 친근한 미소가 빈터투어 중심부를 만남의 광장으로 만들어 준다. 여기에도 사진의 피사체는 넘쳐난다.

자전거로 돌아보는 도시

빈터투어는 자전거도 인기다. 빈터투어가 스위스의 자전거 도시로 알려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빈터투어 사진 박물관의 예술 교육가로 일하는 크리스티나 슈미트(Christina Schmidt)도 자전거로 구시가지 주변을 달린다. 구시가지에 수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무척 마음에 드는 그녀다. 예술과 문화든, 미식과 레저 액티비티든 구시가지는 항상 분주하다. 포토그래피만큼이나 도시도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다. 크리스티나는 여러 테크놀로지가 어디서든 사진을 찍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찰 중이다.

포토첸트룸

구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그녀의 일터인 포토첸트룸이 있다. 사진 박물관은 현대 사진에 집중하며 일상의 포토그래피도 탐색한다. 사진 재단의 기능은 사뭇 다르다. 50 년간 이어진 스위스의 포토그래피 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사진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돌보고, 작품을 아카이빙 하며, 전시와 출판을 통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쓴다. 여행자도 꼭 한번 찾아봐야 할 이유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3. 취리히의 여름

스위스 도시의 여름은 지중해의 풍미를 선사한다. 물놀이, 시원한 밤공기, 분위기 있는 한 잔이 여름의 묘미다. 호숫가에서의 요가, 강가 산책, 물가에 자리한 화려한 건축물로 더 여유로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 취리히는 리마트(Limmat) 강과 취리히 호수가 도심에 흐르고 있어 다채로운 물놀이와 물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취리히 시민들이 즐기는 방식 그대로, 취리히의 여름을 체험해 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취리히의 리도(Lido) 라운지

리마트 강에는 여성 전용 수영장이 있다. 낮에는 여성 전용 수영장이지만, 저녁이 되면 트렌디한 "맨발 바"로 변신한다. '리도'는 수영장을 뜻한다. 보통 강이나 호수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가 깃든 여성 전용 리도는 구시가지 한복판,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여성들끼리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저녁이 되면 남성들에게도 문을 열고 바로 변신하는데,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천 바로 꼽힌다. 잊지 못할 취리히 구시가지의 풍경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슈트트하우스케(Stadthausquai)에 수영장이 있고, '맨발 바'라는 뜻의 바 이름은 바르푸스바(Barfussbar)다. 수영장 이름은 '여성 수영장'이라는 뜻의 프라우엔바디(Frauenbadi)다.

파빌리옹 르코르뷔지에(Pavillon Le Corbusier)

취리히 호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물가 건축물'이다. 위대한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마지막 작품이 여기 취리히 호숫가에 있다. 르코르뷔지에의 건축물, 조각, 회화, 가구 디자인, 글의 조화로운 통일을 반영한 완전한 작품이다. 르코르뷔지에는 돌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했으나, 이 작품에서는 특이하게 유리, 강철, 밝게 칠해진 플라스틱을 채택했다. 취리히호른 근처, 취리히 호수 동쪽 해안에 있는 건축물은 1964 년 미술품 수집가 하이디 베버(Heidi Weber)로부터 의뢰를 받아지었다. 현재는 하이디 베버 박물관(Heidi Weber Museum)이 들어서 있으며 르코르뷔지에의 인생과 작품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해진 개관일에 대중에게 개방되는 전시에서는 그래픽 작업 컬렉션도 볼 수 있다.

제바트 엥에(Seebad Enge)와 호숫가 사우나

취리히 호수에 두 개의 널찍한 뗏목 같은 구조물이 떠 있는데, 혼성 및 여성용 풀장이 되어준다. 두 풀장 모두 호수로 뛰어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단한 알프스 파노라마도 선사한다.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 근처에 있는 제바트 엥에는 취리히를 가장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호수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평선 너머 알프스가 펼쳐지고, 그릴과 샐러드를 제공하는 노천 바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전통 마사지, 요가 클래스, 호숫가 사우나는 완벽하면서도 독특한 체험을 선사한다. 사우나는 겨울에도 운영하는데, 사우나를 하다가 4-6 도 밖에 안되는 차가운 호숫물에 뛰어드는 짜릿함도 즐길 수 있다.

스탠드 업 패들링(Stand-Up Paddling) 시티 투어

취리히를 새로운 각도로 탐험할 수 있다. 액티브한 레저 활동을 하면서다. 가이드 투어로 진행되는데, 취리히의 역사 깃든 명소를 물에서 발견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패들링 보드에 서서 말이다. 참가자들은 스탠드 업 패들링을 먼저 배우고 난 뒤, 물길을 따라 취리히 도심의 흥미로운 명소를 둘러보게 된다.

호숫가 산책로, 공원, 그리고 차이나 가든

여름 내내 호수 저지대 분지 인근 그린벨트에는 보고 즐길 거리가 많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수영을 하는 사람들, 주얼리 판매상, 그리고 거리의 예술가들이 어울려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호숫가 산책로 끝자락에 등장하는 취리히호른(Zürichhorn)에는 취리히의 자매도시인 쿤밍(Kunming)이

선물한 차이니즈 가든(Chinese Garden)이 있다. 이곳에는 레스토랑 레이크 사이드(Restaurant Lake Side) 등 호수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과 비어가르텐(Biergarten), 그리고 생선 전문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티펜브룬넨(Tiefenbrunnen) 호숫가에서 페달로(pedalo)를 대여해 취리히에서의 잊지 못할 모험의 시간을 보내봐도 좋다.

리마트-우퍼베그(Limmat-Uferweg)
취리히 횡(Höngg)에서 시작하는 순환 루트로, 리마트 강을 따라 도시를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으로 이어진다. 물가를 따라 이어지는 루트는 곧, 베르딘젤(Werdinsel) 섬을 건너고, 클로스터 파(Kloster Fahr) 수도원을 지난다. 진정한 휴식을 도심 근처에서 즐길 수 있다. 강가의 식물과 굽이진 나무, 초록의 들판과 밭이 일상에서 확연히 벗어났다고 말해준다. 특히 베르딘젤 섬은 인기 있는 곳으로, 여름에는 수영을 하기 위해 많은 현지인들이 찾는다. 베네딕트회 소속의 파 수도원도 한 번쯤 찾아볼 만한데, 물가 조용한 자리에 있다. 여러 종류의 식물, 널따란 벌판과 초록 들판이 있는 청정 자연의 광활한 뷰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운터렝슈트링엔(Unterengstringen)에서 다리를 건너 강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 리마트 강을 따라 양방향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코스로, 쉐넨베르트(Schönenwerd)에서 시작해 취리히 횡까지 다시 한번 물가를 따라 절경의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루트 상에 중간중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여럿 등장한다. 총거리는 15km 고, 소요시간은 약 4 시간이다. 오르막은 80m 로, 꽤 평탄한 길이다.

취리히 국립 박물관(Natioinal Museum Zurich)
국립 박물관은 스위스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문화 및 역사 관련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다. 100 년 된 건물의 벽 안에서 방문객들은 이전 세대가 어떻게 살았고, 생활했고 느꼈는지에 대해 통찰을 하게 되고,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박물관은 예술과 공예의 실질적인 유산부터 평범한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통해 선사부터 현재에 걸친 스위스의 삶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맞춘 특별 전시는 잠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1898 년, 최초의 연방 헌법 50 주년을 기념하고자 구스타프 굴(Gustav Gull)이 스위스 국립 박물관을 지었다. 중앙 철도역과 플라츠슈피츠(Platzspitz) 사이에 자리 잡은 박물관 건물은 동화 속 성을 연상케 한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